東洋學 第61輯(2015年 10月)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서남아시아로부터 동북아시아로의 어휘 전파

-'야홀[鴉鶻]', '날[剌]', '마니주(馬泥珠)'를 중심으로-*

여채려 · 김양진**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14세기 후반에 작성되어 15세기, 16세기를 거쳐 18세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중국어 회화서로 널리 사용된『박통사』에 실린 어휘 가운데 그 연원을 멀리 서남아시아에 두고 있는 '야홀[鴉鶻]'과 '날[剌]', 그리고 15세기 중엽에 작성된『석보상절』,『월인석보』 등의 불경언해에서 나타나는 '마니주(馬泥珠)'의 전파 과정을 살펴보고 이들 어휘가 각 언어의 어떤 시기에 어떠한 흔적으로 남겨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논의 결과는 주로 아라비아나 페르시아, 서인도 등을 출발점으로 하는 서남아시아의 어휘들이 중앙아시아와 몽골 초원을 거쳐 한반도 북부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이들 지역의 역사적 진행 과정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서남아시아로부터 동북아시아로의 문화적 교류의 통로가 갖는 단면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문화적 교류의 통로를 통하여 교류된 어휘들은 물론 쌍방적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특히 먼 교류의 여정을 거쳐 한반도에까지 도달한 몇몇 어휘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화적 교류가 활성화한 시기와 그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제어] 야홀[鴉鶻], 날[剌], 마니주(馬泥珠),『박통사(朴通事)』, 어휘 전파

목 차

Ⅰ. 머리말
Ⅱ. '날(nal)'과 '야홀(yahol)'의 전파
Ⅲ. '마니주(馬泥珠)'의 전파
Ⅳ. 맺음말

* 이 논문은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학술기행의 지원을 받아,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에서 2015년도 8월 20~21일에 개최된 제12차 코리아학 국제학술토론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 여채려(제 1 저자),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yu_caili@hotmail.com
김양진(교신저자),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 kimrj@khu.ac.kr

Ⅰ. 머리말

고대 동양과 서양의 문화교류는 이미 인류의 이동 경로와 함께 기원전 7,0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 의미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동서양 교류의 경로는 기원전 7~8세기 무렵 스키타이에 의해 주도된 이른바 '동방교역로'의 개척을 그 한 축으로 하고 기원전 6~7세기 경 페르시아인들이 파미르 고원 이서(以西)의 오아시스 육로를 개발하면서 이른바 '실크로드'가 본격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흔히 언급되는 현대 이전의 실크로드 형성 과정은 크게 개척기, 번영기, 쇠퇴기의 3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척기는 기원전 8세기경에 스키타이가 초원로를 이용하기 시작한 이래 기원전 2세기에는 중국 전한(前漢)의 장건(張騫)이 서역로를 뚫었고 기원후 1세기에 로마인들이 해로를 통하여 동방 원거리 무역을 단행함으로써 동서간의 통교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기를 아우른다. 이 시기 각 지역에서 많은 진귀한 물품과 문물이 교역되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시기에 인도의 불교가 전해지면서 불교와 관련된 보물도 이 비단길을 거쳐 유입되었다. 번영기는 기원 초 전한 장건에 의해 개척된 서역로와 로마에 의해 개척된 해로 등에 의해 시작되어 몽골제국의 동정(東征) 및 정화(鄭和)에 의한 대항해 시대 개막을 거쳐 16·17세기 신·구대륙 간의 해로가 개척되고 교역이 진행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중국을 비롯한 동양의 숱한 문물들이 서양과 신대륙으로 유입되고 아울러 대규모의 중앙아시아 사람과 이슬람교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서쪽의 보석과 아라비아의 嵌象 기술이 성행하였다. 명나라 때부터 시작된 정화의 서양 진출은 한편 동서문화 교섭에 매우 커다란 구실을 하였고 인도·페르시아·아라비아 등의 나라로부터 수많은 보석이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바로 이 시기, 즉 14세기 후반에 작성되어 15세기, 16세기를 거쳐 18세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중국어 회화서로 널리 사용된 『박통사』에 실린 어휘 가운데 그 연원을 멀리 서남아시아에 두고 있는 '야홀[鴉鶻]'과 '날[剌]', 그리고 15세기 중엽에 작성된 『석보상절』, 『월인석보』 등의 불경언해에서 나타나는 '마니주(馬泥珠)'의 전파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어휘가 각 언어의 어떤 시기에 어떠한 흔적으로 남겨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화적 교류의 통로를 통하여 교류된 어휘들은 물론 쌍방적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특히 먼 교류의 여정을 거쳐 한반도에까지 도달한 몇몇 어휘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화적 교류가 활성화한 시기와 그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논문의 논의 결과는 주로 아라비아나 페르시아, 인도 등 나라를 출발점으로 하는 서남아시아의 어휘들이 중앙아시아와 몽골 초원을 거쳐 한반도 북부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이들 지역의 역사적 진행 과정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서남아시아로부터 동북아시아로의 문화적 교류의 통로가 갖는 단면을 드러내고자 하는 데 있다.

Ⅱ. '날(nal)'과 '야홀(yahol)'의 전파

김양진(2011)[1]에서는 (번역)『박통사』(上)의 난해어 '날'이 몽골어 'nal'에서 기원하며 이 단어가 (번역)『박통사』(上) 원문상의 또다른 난해어 '鴉忽'과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 바 있다. 이를 '날'과 '야홀'의 전파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두 어휘가 만나게 된 과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 '날(nal)'의 전파

『박통사』는 고급 중국어 회화서로서 다양한 스토리 속에 담겨 있는 난해어들의 해독이 어려운 텍스트이다. (번역)『박통사』(上)(최세진, 1516)의 10화에 나오는 난해 외래어 명사로 '날바・근금가락・지'에서의 '날'을 들 수 있다.

(1) 가. 一箇七寶金簪兒 一對耳墜兒 一對窟嵌的金戒指兒
나. 칠보 금빈혀 ᄒᆞ나과 귀엿골희 ᄒᆞᆫ 쌍과 날바・근금가락・지ᄒᆞᆫ쌍・과・를 〈(번역)『박통사』 상: 20b-6〉

(1 가)의 밑줄 친 '一對窟嵌的金戒指兒'과 이에 대한 중세 한국어 대역인 (1 나)의 '날바근금가락지ᄒᆞᆫ쌍・과・를'은 현대 한국어에서 흔히 "진주 박은 금가락지 한 쌍을"로 번역된다.[2] 여기서 중국어 원문의 '窟嵌的'의 뜻이 '박은'에 대응된다고 할 때, 현대 한국어에서 '진주'로 번역된 '날'에 대한 번역의 근거는 중국어 원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나,『老朴集覽』의 '窟嵌戒指' 항목의 주석에 따르면 그 근거를 헤아려 볼 수 있다.

(2) 窟嵌戒指 事物紀原云……今按窟嵌者 指環之背 剜空爲穴 用珠塡穴爲飾 總龜云 亦名手記 所飾玉石呼爲戒指面 舊本作指纏兒 音義 窟音・왕 窟是空字之誤 窟音・쿵 空音・황.('窟嵌戒指'는『事物紀原』에서 말하기를,……지금 생각해 보니 '굴감(窟嵌)'이란 반지[指環]의 뒷면을 깎아 구멍을 내고 '珠'로 그 구멍을 메워 장식하는 것이다.『總龜』에서는 "또한 '수기(手記)'라고도 하고 장식된 옥석을 반지면[戒指面]이라고 한다"고 하였다.『舊本』에는 '指纏兒'로 씌어있다.『音義』에서 '窟'은 음(音)이 [・왕]인데 '窟'은 '空'字의 잘못이다. '窟'은 음(音)이 [・쿵]이고 '空'은 음(音)이 [・황]이다.) 〈『老朴集覽』上: 7b-7〉

즉 (1 가, 나)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번역은 (2)의 밑줄 친 부분의 내용에 따라 "진주 박은 금가락지 한 쌍을"로 옮기게 된 것이다. 하지만 (2)의 밑줄 친 부분의 설명을 중심으로 (1 가)의 원문 속 '窟嵌的金戒指兒'

1) 김양진,「(번역)『박통사』(上)의 명사류 난해어에 대하여」,『국어사연구』13, 국어사학회, 2011.
2) 이러한 번역은 최재영・정윤철(「『朴通事諺解』譯註(2)」,『중국어문논역총간』18, 중국어문논역학회, 2006, 369쪽), 장숙영(『번역박통사: 상, 주석』, 한국문화사, 2008, 48쪽) 등의 대부분의 번역에 반영되어 있다. 박성훈(『飜譯朴通事辭典』, 태학사, 2010, 82쪽)에는 '날박다'라는 표제어가 "장식을 박다."로 뜻풀이 되었다.

를 '진주 박은 금가락지 한 쌍을'로 번역하는 일은 설명할 수 있겠으나 (1 나)의 (번역) 『박통사』(上)에 반영된 중세 한국어 '날바 · 근금가락 · 지'에서의 '날'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3)]

이러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15세기 중국어(그리고 16세기의 중세 한국어)를 반영한 (1 가)의 (번역) 『박통사』의 원문은 18세기에 출간된 『박통사신석』(김창조 등, 1765)에서는 (3 가)로 바뀌고 바뀐 원문에 대한 번역은 『박통사신석언해』(김창조 등, 1765)에서 (3 나)와 같이 달라진다.

(3) 가. 四對珠簪 九枝金鳳 兩對寶石廂嵌的鬢簪 <u>一對貓兒眼廂嵌的金戒指</u>
나. 네 빵 진쥬 박은 빈혀와 아홉 가지 金鳳과 두 빵 寶石에 뎐메워 날박은 鬢簪과 <u>ᄒᆞᆫ빵 야광쥬 뎐메워 박은 金가락지</u> 〈『박통사신석언해』 상: 23b-24a〉

(번역) 『박통사』의 '窟嵌的' 부분은 『박통사신석』에서 '貓兒眼廂嵌的'으로 수정되었고 이에 대응하는 『박통사신석언해』의 언해도 '야광쥬 뎐메워 박은'으로 바뀌었다. 아마도 '空嵌的'였을 '窟嵌的'는 '廂嵌的'로 수정되었고 이 앞에 '야광주'라는 뜻인 '貓兒眼'이 추가되었으며 '廂嵌的'의 뜻에 맞게 '뎐메워 박은'으로 수정된 것이다.

그런데 『박통사신석』의 밑줄 친 부분의 앞에 나오는 "兩對寶石廂嵌的鬢簪"에 대한 언해가 "두 빵 寶石에 뎐메워 날박은 鬢簪과"로 되어 있어서 중국어 원문 '廂嵌'에 대한 18세기 한국어 번역에 '날박은'과 '(뎐메워) 박은'이 선택되되 이미 이때 '날박은'의 '날'의 의미는 잉여적이 되고 그 잉여성이 '寶石'이나 '貓兒眼[즉 야광주]'[4)]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용법을 통해 '날'의 기본적 의미를 '보석이나 야광주' 따위를 포괄하는 어떤 단어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날'의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그 연원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박통사』가 작성된 최초의 시기, 즉 원나라 당시의 보석에 대한 일반적인 단어들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원나라로부터 명나라에 이르는 시기에, 서쪽으로부터 많은 종류의 보석이 유입되고 다양한 보석 嵌象 기술이 성행하였다는 것을 언급하였는데, 당시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보석에 대한 嵌象 기술에 대해 작성한 저서에 이러한 보석과 관련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타난다.[5)] 특히 *Azhār al-Afkār fī Jawāhir*

---

3) (2)에 인용된 『音義』의 "'窟'은 '空'의 잘못으로. '窟[ㅣ · 쿵]'아니고 '空[ㅣ · 황]'로 읽어야 한다"라는 기록에 따르면 '窟嵌戒指'의 현대식 독법은 [굴감계지]가 아니라 [알감계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窟'이나 '空'은 모두 '구멍을 내다', '구멍을 파다'의 의미를 지닐 뿐이므로 '窟嵌戒指'는 "구멍을 내서 상감한 반지"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없다. 즉 '날박은 금가락지'에서의 '날'의 의미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空'의 한국 한자음이 '알'인 점을 고려할 때, 현대 국어의 입말에 남겨진 '알박다', '알박은 반지'에서의 '알'과 이 '날'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4) '貓兒眼'은 '야명주' 혹은 '야광주'를 가리키는 말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할 수 있다.
『漢書 · 地理志』(반고, 3C) : 應募者俱入海市<u>明珠</u> 璧流離 奇石異物 齎黃金雜繒而往"
『癸亥雜識』別集上『楊髡發陵』(元代 初年) : "……一小廝攫取 擲地有聲 視之 乃金絲所成也 <u>或謂含珠 有夜明者 聞有得貓眼</u> 金剛石異寶者"
『諸蕃志』(趙汝適, 南宋) : 記印度東海岸南毗國出產<u>貓眼石</u>。"國有淡水江……旁有山突兀 常有星現其上 秀氣鍾結 產爲小石 如<u>貓兒睛</u> 其色明透……"

5) 흔히 '嵌玉技法'으로 알려진 이 기술은 "금테두리에 여러 가지 색깔의 옥(玉)을 박아 넣는 공예기법"으로 이른바 다채장식양식(多彩裝飾樣式)으로 알려져 있는데 누금기법과 함께, 고대 이집트에서 고안되어 성행되다가 그리스, 로마를 거쳐 메소포타

al-Ahjār[6](13C, Al-Tīfāšī)[7]에는 이 시기에 동서 교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보석명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중국에서 이들 보석을 종류별로 자세히 분류하여 소개한 초기 저작으로는 14세기 중엽의 『南村輟耕錄』(元 陶宗儀, 1348(至正八年))을 들 수 있다. 이 책의 권칠(卷七) 「回回石頭」 항목에는 당시 알려져 있던 보석의 명칭과 분류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에 따르면 중세 한국어의 정보를 담은 『박통사』류 언해문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날'이 '紅石頭'에 해당하는 '剌'의 음차어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剌'과 관련하여 『南村輟耕錄』「回回石頭」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4) 回回石頭 種類不一 其價亦不一 大德間 本土巨商中賣紅剌一塊於官 重一兩三錢 估直中統鈔一十四萬錠 用嵌帽頂上 自後累朝皇帝相承寶重 凡正旦及天壽節大朝賀時則服用之 呼曰剌 亦方言也 今問得其種類之名 具記於後[8] (回回의 石頭는 종류가 단일하지 않으며 그 가격도 또한 단일하지 않다. 大德[9] 연간에 本土의 어떤 거상이 한 관리에게 紅剌 한 덩어리를 팔았는데, 무게가 한 냥 세 돈쭝이며 가격은 中統鈔 십사만정초이다. 모자 꼭대기에 상감하는 데 썼는데 이후에 역대 왕조의 황제들이 계승하여 귀중히 여겼다. 무릇 元旦이나 天壽節[10]에 朝賀할 때 갖추어 쓴다. 부를 때는 '剌[날]'이라 하였는데 역시 방언이다. 이제 문의하여 그 종류의 명칭을 얻어 뒤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다.)

(4)의 『南村輟耕錄』 '回回石頭' 항목은 '回回의 石頭' 즉 회회 지역의 '돌멩이'에 대한 기록이다. '回回'는 흔히 '回紇' 즉 '위구르'와 혼동을 일으키지만 일반적으로 13세기 이후 원을 중심으로 하는 몽골 제국에 의한 민족 차별 정책에 의해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위구르족을 포함한 페르시아인, 아라비아인 등 서아시아의 여러 인종을 통틀어 이르던 말이다.[11] 고려 가요 「쌍화점」에 나오는 '回回아비'의 '回回'가 이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4)에서는 이른바 '回回의 石頭', 즉 아라비아, 페르시아 등 서아시아에서 유입된 '돌멩이[石頭]'를 귀중한 보석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南村輟耕錄』에 기록된 아라비아, 페르시아 등 중아시아에서 유입된 '回回의 石頭'에는 '紅石頭, 綠石頭, 鴉鶻, 貓睛, 甸子'의 다섯 가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아와 페르시아 등지에서 유행하다가 동쪽으로 전파되어 고대 한국(신라, 백제)에까지 전해진 기법을 말한다. 정수일(편), 『실크로드 사전』, 창비, 2013, 13쪽, '감옥기법嵌玉技法' 표제항을 참고할 것.

6) 이 책의 한어식 서명은 『寶石鑒賞專著』이며 구체적인 작성 시기가 불분명하나 대략 13세기 전반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wdl.org/zh/item/4256/ 혹은 http://www.worldcat.org/title/kitab-azhar-al-afkar-fi-jawahir-ahjar/oclc/21638433&referer=brief_results (검색일 : 2015.10.10)를 참조할 것.

7) *Azhār al-Afkār fī Jawāhir al-Ahjār*(『寶石鑒賞專著』)의 저자인 Al-Tīfāšī의 완전한 이름은 Abu al-ʿAbbās Ahmad b. Yūsuf al-Qaysī al-Tīfāshī이며, 중국식 음차 이름은 提法斯이다. 생몰년은 1184~1253.

8) (元)陶宗儀, 『南村輟耕錄』(1344), (卷七)「回回石頭」.

9) 大德은 元 成宗의 年號로 대덕연간은 1297~1307에 해당한다. 元 成宗은 흔히 알려진 바 칭기스칸의 손자인 테무르를 말한다.

10) 天壽節은 금, 원 시기에 황제의 생일을 가리키던 말이다. "[天壽節] 金元時以天子的生日爲天壽節。"; 『金史・章宗紀一』: "詔以生辰爲天壽節。" 『元史・禮樂志一』: "遇八月帝生日, 號曰天壽聖節。"〈『漢語大辭典』, 1994/2001〉

11) '回回'와 '回紇'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지면에서 소개된 바 있다. 楊志玖(1993, 2003)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13세기부터 몽고제국의 민족차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많은 페르시아인, 아라비아인 등과 같은 중앙아시아인이 중국에 정착해 살면서 중국의 문화를 많이 배우게 되었으며 '回回人'이라고 불린다"고 지적한 바 있다. 楊志玖, 「回回人的東來和分佈」, 『回族研究』 1, 1993; 楊志玖, 『元代回族史稿』, 天津: 南開大學출판사, 2003.

(5) 紅石頭 四種 同出一坑 俱無白水 (홍석두. 네 가지가 있고, 같은 壙에서 나오며 白水가 없는 것이다.)

刺 淡紅色 嬌 (la'l. 옅은 紅色으로 아름답다.)

避者達 深紅色 石薄方嬌 (bijādi. 짙은 紅色이며 얇고 方形으로 아름답다.)

昔刺泥 黑紅色 (sīlānī. 黑紅色이다.)

苦木蘭 紅黑黃不正之色 塊雖大 石至低者

(humrah. 홍색, 흑색, 황색 등 잡색을 지니며 알은 굵지만 石質은 가장 낮은 것이다)

綠石頭 三種 同出一坑 (녹석두. 세 가지가 있으며 같은 壙에서 나온다.)

助把避 上等 暗深綠色 (dhubbābī. 상급이며 어둡고 짙은 녹색이다.)

助木刺 中等 明綠色 (zumurrud. 중급이며 밝은 녹색이다.)

撒卜泥 下等 帶石 淺綠色 (sābūnī. 하급. 줄무늬 있는 돌로 엷은 녹색이다.)

鴉鶻

紅亞姑 上有白水 (humrah yāqūt. 윗면에 白水가 있다)

馬思艮底 帶石無光 二種同坑

(māsjayyidī. 줄무늬 있는 돌로 광택이 없다. 두 가지가 같은 壙에서 나온다.)

青亞姑 上等 深青色 (kabūd yāqūt. 상급이고 짙은 청색이다.)

你藍 中等 淺青色 (nīlan. 중급이고 엷은 청색이다.)

屋撲你藍 下等 如水樣 帶石 渾青色

(qurbu nīlan. 하급이며 물결무늬같은 띠가 있는 돌로 뒤섞인 청색이다.)

黃亞姑 (황아고.)

白亞姑 (sifīd yāqūt.)

貓睛

貓睛中含活光一縷 (묘정. 가운데에 번쩍번쩍한 한 가닥 줄무늬를 포함되어 있다.)

走水石 新坑出者 似貓睛而無光

(주수석. 새 壙에서 나온 것으로 고양이 눈동자와 비슷하지만 광택이 없다.)

甸子[12]

你捨卜的 即回回甸子 文理細 (nīshāpūr. 즉 回回의 터키석으로 무늬가 조밀하다.)

乞里馬泥 即河西甸子 文理粗 (kirmānī. 즉 河西의 터키석으로 무늬가 띄엄띄엄하다.)

荊州石 即襄陽甸子 色變 (荊州石. 즉 襄陽의 터키석으로 색이 다르다.)

(5)에서 보듯이 '回回石頭'에는 당시 알려진 보석에 대한 이름, 성질, 빛깔 등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담겨 있는 정보는 매우 풍부하다.

우선 '回回石頭'의 보석 명칭은 대부분 아라비아어에서 음차된 것이다. 柳昭民(2006),[13] 林梅村(2014)[14] 등에 따르면 각 보석 이름에 대응하는 아라비아어는 'la'l(刺), bijādi(避者達), sīlānī(昔刺泥), humrah(苦木

12) 甸子는 綠松石, 즉 터키석(turquois)을 가리키는 말이다.

13) 柳昭民, 「元明清西部少數民族對寶石和玉之開采及認識」, 『中華科技史學會會刊』 10, 2006.

14) 林梅村, 「珠寶藝術與中外文化交流」, 『考古與文物』, 2014.

蘭), dhubbābī(助把避), zumurrud(助木剌), sābūnī(撒卜泥), humrah yāqūt(紅亞姑), māsjayyidī(馬思艮底), kabūd yāqūt(青亞姑), nīlan(你藍), qurbu nīlan(屋朴你藍), sifīd yāqūt(白亞姑), nīshāpūr(你捨卜的), kirmānī(乞里馬泥)'이며[15] 이를 표로 정리해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南村輟耕錄』「回回石頭」 항목의 보석분류명과 원어

종류	음차 명칭	아라비아어	산스크리트어	빛깔	성질	원산지	유입시기	현대 명칭 (영어)
紅石頭 (la'l)	剌	la'l		淡紅色	嬌, 無白水			첨정석 (spinel)
	避者達	bijādi		深紅色	石薄方嬌, 無白水			석류석 (gernet)
	昔剌泥	sīlānī		黑紅色	無白水			Sinhalite
	苦木蘭	humrah		紅黑黃不正之色	塊雖大 石至低者, 無白水			
綠石頭 (emerald)	助把避	dhubbābī		暗深綠色	上等			
	助木剌	zumurrud	marahata	明綠色	中等		동한	에메랄드 (emerald)
	撒卜泥	sābūnī		淺綠色	下等			
鴉鶻 (yāqūt)	馬思艮底	māsjayyidī almās(페)	vajra	無光			동한	다이아몬드 (diamond)
	紅亞姑	humrah yāqūt	padma-rāgha		上有白水			루비(ruby)
	青亞姑	kabūd yāqūt	mahānīha	深青色	上等		동한	사파이어 (sapphire)
	你藍	nīlan		淺青色	中等			
	屋朴你藍	qurbu nīlan		渾青色	下等(如水樣)			
	黃亞姑	zabarjad(페)[16]						
	白亞姑	sifīd yāqūt						
貓睛	貓睛	ain al - hirr	karketana	含活光一縷		스리랑카/ 남인도	선진시대	금록석(金綠石, chrysoberyl)
	走水石			無光				
甸子 firūzaj(페) marakata (산)	你捨卜的 (回回甸子)	nīshāpūr			文理細	미얀마	당나라	터키석 (Turquoise)
	乞里馬泥 (河西甸子)	kirmānī			文理粗			
	荊川石 (襄陽甸子)				色變	河南襄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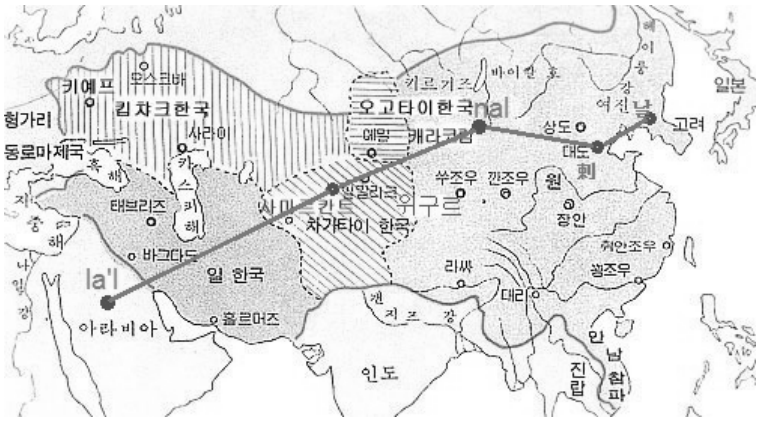
15) 이 중에서 '紅亞姑〈humrah yāqūt], 青亞姑〈kabūd yāqūt], 白亞姑〈sifīd yāqūt]'는 빛깔(잡색[humrah], 푸른색[kabūd], 하얀색[sifīd])에 따라 명명된 것이다. 빛깔에 따라 보석 이름도 다르고 보석의 질도 어떤지 알 수 있다. 같은 빛깔 계열을 보면 단일 빛깔이면서 짙을수록 보석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柳昭民(2006) 및 林梅村(2014)을 참조할 것.

16) '페'는 '페르시아어'의 약칭이다. 대부분의 다른 단어들이 아라비아어(즉 아랍어)에서 기원한 것이지만 페르시아어에서 기원한 것도 있다. 이는 뒤에 '鴉忽'과 '亞古'의 전파 과정과도 관련된다.

(4)의 설명 말미에 '紅剌'에 대한 보충 설명 중에 '剌'에 대해서 "呼曰剌 亦方言也"라 하였는데, (번역)『박통사』등의 '날'은 바로 이 방언 '剌'이 고려 혹은 조선에 유입된 것이다. 이를 언어의 유입 과정만을 따진다면 (번역)『박통사』등의 '날'은 몽골어에서 직접 차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17]

하지만 음차어 '剌'이 포함된 아라비아어 단어 '剌〔〈la'l〕, 昔剌泥〔〈sīlānī〕, 助木剌〔〈zumurrud〕'을 보면 '剌'와 대응되는 아라비아어가 'la, lā, ru' 등이 있고 심지어 문헌에 따라서는 '苦木蘭〔〈humrah〕'도 '苦木剌'로 음차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紅石頭' 4종 가운데에서도 'la'l(剌)'이 가장 대표성을 띠게 되었고 원나라(혹은 몽골)를 거쳐 고려 혹은 조선에 유입될 때 '剌'로 통칭되었을 가능성이 있다.[18]

따라서『박통사』류 문헌의 언해에서 보이는 '날(〈剌〈nal〈la'l)'에 대한 전파 과정은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서아시아의 아라비아 지역으로부터 원나라 때의 중국 대륙을 거쳐 당시 고려에까지 도달한 것이다.



〈그림 1〉 '날'의 전파 경로

2. '야홀(yahol)'의 전파

이러한 'la'l[아라비아 〉 위구르] 〉 nal[몽골] 〉 剌[중국] 〉 날(고려/조선)'의 전파 과정과 관련하여 (5)에 제시된『南村輟耕錄』'回回石頭'의 보충 설명에서, '紅石頭'의 '苦木蘭〔〈humrah〕'과 '鴉鶻'의 '紅亞姑〔〈humrah

17) 한편 (4)에 따르면 당시의 '剌'은 매우 귀중한 보석임을 알 수 있다.『박통사신석』에서 '金戒指'을 장식하는 보석이 '貓兒眼'로 바뀌게 된 이유도 아마 '剌'이 매우 귀해서 구하기 어려운 보석인 데 비하여 '貓兒眼'이 좀더 대중적인 보석이었기 때문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증거를 청나라 陳元龍(1652~1736)의『格致鏡原』卷三十三「珍寶類」의 '貓睛' 관련 설명인 "貓睛名貓兒眼……『波斯志』貓睛出南蕃 性堅 黃如酒色……或青黑色者 皆不為奇 大如指面者 尤好 小者價輕 宜廂嵌用"(서책 표시 및 밑줄 필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밑줄 친 부분의 내용에 따르면 '貓兒眼' 중 작은 것은 값이 싸서 흔히 반지의 상감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 현대의『한몽·몽한사전』(여병무외 편, 몽골 울란바타르 대학교 출판부, 2007)에서는 "nal : 〈광물〉루비"의 풀이를 확인할 수 있고 몽러 사전 *Mongol helnii tovch tailbar toli*(H.Luvsanbaldan 감수, 울란바타르, 1966)에서는 "nal erdene : 붉은색의 보석"과 같이 처리하고 있어서 본고에서의 이러한 해석을 지지해 준다.

yāqūt]'이 보이는 이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南村輟耕錄』의 설명에 따르면, '苦木蘭〔〈humrah]'의 빛깔은 "紅黑黃不正之色(빨간색, 검은색, 노란색 등이 뒤섞인 잡색)"이다. 이 단어의 아라비아어 대응어 'humrah'에도 "잡색, 여러 가지 색이 뒤섞인 색"[19]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紅亞姑〔〈humrah yāqūt]'는 '잡색홍보석'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하지만 『南村輟耕錄』에서는 '剌'과 '苦木蘭'이 포함된 '紅石頭'와 '紅亞姑'가 포함된 '鴉鶻'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보석으로 설명하고 있다. 같은 빛깔을 지니는 '紅亞姑'가 '苦木蘭'이 아니라 '鴉鶻'에 속하게 된 이유는 '紅石頭……俱無白水'와 '紅亞姑……上有白水'라는 구절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만약에 '백수(白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紅石頭'의 네 가지 보석과 '鴉鶻'에 속하는 '紅亞姑'가 구별된다면 이런 점에서 '날(〈剌)'과 '아홀(鴉鶻)' 간에는 모종의 異同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날'과 '紅亞姑'는 '白水' 유무로 구별되지만 둘다 붉은색 보석에 속하기 때문에 보석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이 두 보석이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박통사』 14화에 나오는 'ᄌᆞ타 · 날'에서 확인된다.

(6) 가. 指頭來大, 紫鴉忽頂兒
나. 손ᄀᆞ락 · 만 · 큰 ᄌᆞ타 · 날딩 · ᄌᆞ · 애 〈(번역) 『박통사』 상: 29b-8〉

(6 가)의 밑줄친 원문 '紫鴉忽'은 번역에서 'ᄌᆞ타 · 날'로 반영되어 있다. '紫鴉忽'의 '鴉忽'은 명나라 黃一正이 편집한 『事物紺珠』에서 "鴉鶻石又名鴉忽有五色出西洋"[20]과 같은 기록을 통해 이때의 '鴉忽'이 (5)에서 확인된 '鴉鶻'과 이표기임을 알 수 있다. '鴉鶻'이든지 '鴉忽'이든지 『南村輟耕錄』에서는 '剌'(紅石頭)과 구별되는 다른 보석으로 구별되어 있으나 (6)에서 보인 것처럼 밑줄 친 중국어 원문 '紫鴉忽'에 대한 중세 한국어 번역에서 'ᄌᆞ타 · 날'로 나타난 것은 '鴉忽'과 '剌'이 같은 보석으로 혼동을 일으켰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6 나)의 'ᄌᆞ타 · 날'은 '*ᄌᆞ타+ · 날'로 분석된다. ' · 날'은 여타의 『박통사』 문헌의 번역문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며 '剌' 혹은 'la'l'의 음차로 이해할 수 있다.

(6 가) 『박통사』 원문의 '紫鴉忽'과 '날'의 상관 관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老朴集覽』의 주석을 참조할 수 있다.

(7) 紫鴉忽 瓅也 出南番西番 性堅滑 有紅瓅 紫瓅……瓅音날 舊本作剌 元語作剌兒. (紫鴉忽은 '瓅'이다. 남번(南番, 인도/미얀마 지역)과 서번(西番, 서장/티벳 지역)에서 난다. 성질은 굳고 매끄럽다. '紅瓅'이 있고 '紫瓅'이 있다. ……'瓅'의 음(音)은 [날]이고 『舊本』에서는 '剌'로 씌어있다. 원(元)나라 말에서는 '剌兒'로 쓴다.) 〈『老朴集覽』 上: 9b-1〉[21]

19) 林梅村, 앞의 글, 2014, 83쪽.
20) 『南村輟耕錄』의 '鴉鶻'에는 '紅亞姑, 青亞姑, 黃亞姑, 白亞姑'의 네 가지만 나타난다. 『事物紺珠』의 "有五色出西洋(다섯 가지 색이 있으며 서양에서 난다)"를 적극적으로 이해한다면 『박통사』의 '紫鴉忽'을 포함하여 다섯 가지 종류의 '鴉鶻'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7)의 설명에 따르면 '紫鴉忽' 즉 'ᄌᆞ타 · 날'은 '紫瓆'와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다만 '瓆'의 음(音)은 [날]이므로 '紫瓆'의 발음은 [ᄌᆞ날]이 되어야 하나 이것이 'ᄌᆞ타 · 날'로 실현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즉 'ᄌᆞ타 · 날'의 ' · 날'이 '瓆'의 대응인 데 대해서 '*ᄌᆞ타'의 경우는 그 어원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통사』의 다른 이야기에 나오는 'ᄌᆞ:탄줄 · 애'의 'ᄌᆞ:탄'을 그 한 후보로 생각해 볼 수 있다.

(8) 가. **紫檀**把兒, 象牙頂兒, 也是走線。
나. **ᄌᆞ:탄**줄 · ᄋᆡ · 샹아머 · 리 · 예 게 · 도 · 또:실도 · 툐리 · 라 〈(번역) 『박통사』 上 :15b-9〉

(8 나)의 밑줄 친 'ᄌᆞ:탄'은 (8 가)의 밑줄 친 '紫檀'에 대한 음차인데 본고에서는 (6 나)의 'ᄌᆞ타 · 날'이 바로 이 'ᄌᆞ:탄(紫檀)+ · 날(瓆)'의 구성에서 '*ᄌᆞ:탄 · 날〉ᄌᆞ타 · 날'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한다.[22] 이러한 분석이 옳다면, 'ᄌᆞ타 · 날'은 원나라 때의 한아언어로 '자단색(紫檀色)의 보석'으로서의 '자날(紫瓆)'을 가리켰던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서 고려한다면 (1)의 '날바 · 근금가락 · 지'에서의 '날'은 바로 이 '날[〈瓆/刺]'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원문의 '紫鴉忽'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1)에서 이 구절의 의미는 "'자날(紫瓆)'을 박은 금가락지"라는 뜻이다. 보석으로서의 '붉은색 날[紅瓆]'과 '자주색 날[紫瓆]'이란 지금으로 치면 '루비'에 해당한다. 현대의 '루비'도 흔히 '홍옥(紅玉)'이라고 하지만 '루비' 중에는 '붉은색을 띤 것'과 '자주색을 띤 것'이 있다. 따라서 (1 나)의 '날바 · 근금가락 · 지'는 현대국어로 옮긴다면 '루비 박힌 금반지' 혹은 '자주색 루비가 박힌 금반지'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南村輟耕錄』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보석으로 구분된 '刺'(紅石頭)과 '鴉鶻'이 중세 한국어에서 상호 대응어로 혼동되어 사용된 정황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刺'과 '鴉鶻'의 관계에 대한 혼동의 실상을 명말 청초의 사상가 方以智의 『物理小識』(1643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9) 古里 三佛齊 安南 錫蘭[23]山 寶石藏璞中……其紅瓆即靺鞨也 亦曰紅鴉琥 薄曰別者歹 其紫鴉琥即錦鱗翅 其嫩者 曰刺兒撇阿劑 紅黑黃曰孔木瓆 黃鴉琥即木難……(古里, 三佛齊, 安南, 錫蘭의 산에 보석이 매장되어 있다. ……그 紅瓆은 즉 말갈이다. 또 紅鴉琥라고도 하고 옅은 것은 別者歹라고 한다. 그 紫鴉琥가 즉 錦鱗翅이며 작은 것은 刺兒撇阿劑라고 한다. 붉고 검고 누런것은 孔木瓆라고 하고 黃鴉琥는 즉 木難이다. ……) (『物理小識』 권7 금석류(金石類))

---

21) 『老朴集覽』의 이러한 설명은 陳元龍(1652~1736)의 『格致鏡原』卷三十三 「珍寶類」에서 인용된 『波斯志』의 '蠟子' 항목 "蠟子 出南番西番 性堅 有紅蠟紫蠟 亦有酒色者 俱明瑩 有大如指面……"(밑줄 필자)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22) 본고에서는 'ᄌᆞ:탄+ · 날'과 'ᄌᆞ타 · 날'의 성조 변화는 합성어 환경에서 나타나는 성조 변화의 한 예로 두고 논의를 전개한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23) '古里'는 현재 인도서남부 케랄라주(州)에 있는 도시 'Kozhikode[코지코데]'의 옛이름 'Calicut[캘리컷]'의 음차이다. '三佛齊'는 현재 東南亞에 있는 나라 'Sumatra[수마트라]'의 음차이다. '安南'는 '베트남'의 옛이름이고 '錫蘭'은 'Sri Langka[스리랑카]'의 한어식 음차어이다.

(9)의 '鴉琥'는 바로 '亞姑', '鴉鶻'의 이표기이고 '別者歹'과 '孔木剌'은 각각 원대 『南村輟耕錄』에서 나온 '避者達', '苦木蘭'의 이표기이며 '紅剌', '別者歹', '孔木剌'이 다 같은 종류에 속하는 보석, 즉 「回回石頭」의 '紅石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명나라의 『物理小識』 「金石類」에는 '紅剌……亦曰紅鴉琥', '紫鴉琥 其嫩者曰剌兒撇阿劑'에서 볼 수 있듯이 '剌'과 '鴉鶻'이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문헌 중에서 穀應泰의 『博物要覽』(1621~1627) 卷六 「志寶石」에서도 '剌'과 '鴉鶻'이 서로 혼동되어 사용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10) 錫蘭國……所産紅寶石夜有光 可代燈燭 元時遣官 採買得大者 一塊重一兩零估值鈔十萬錠 嵌於冠上 每大朝會 黑夜滿殿紅光如曙 名照殿紅 又有色深紅 而有白水 嬌豔明瑩……又産酒黃寶石……又産紫寶石 名披耶西 色深紫如葡萄 極大者重五六兩……又産青寶石 色深青藍靛 (Sri Langca에서는……홍보석이 나는데 밤에도 빛이 나서 가히 촛불을 대신할 수 있다. 원나라의 어떤 유신이 큰 것을 구해서 샀는데 한 덩이에 무게가 한 냥쭝이고 값은 십만 정초이다. 모자 위에 상감해서 조회 때마다 깜깜한 밤에 대전에 붉은빛이 가득하여 날이 샌 것 같아서 '照殿紅'이라 이름하였다.[24] 또 색은 짙은 홍색이고 白水가 있으며 아름답고 영롱하며 밝고 휘황찬란하다. ……또 酒黃色 보석도 나고 자주색 보석도 난다. 자주색 보석은 'bijādi[披耶西]'[25]라고 하며 빛깔이 포도처럼 짙은 자주색이고 제일 큰 것은 무게가 대여섯 냥이다. ……또 청보석도 나는데 색은 짙은 청색이다.)

(10)에서 '紅寶石' 중 '照殿紅'에 대한 기술은 (4)의 '剌'에 대한 문헌기록과 일치하다는 점에서 '照殿紅'은 바로 『南村輟耕錄』의 「回回石頭」에서 나온 '剌'임을 알 수 있지만, "又有色深紅 而有白水"와 같은 기록은 「回回石頭」의 '紅亞姑'와 같다. 이와 같이 『南村輟耕錄』에서 '剌'과 '鴉忽'을 다른 종류의 보석으로 구분하는 것과

24) 이 부분의 내용은 (4)에서 인용한 14세기 『南村輟耕錄』의 "大德間 本土巨商中賣紅剌一塊於官 重一兩三錢 估直中統鈔一十四萬錠 用嵌帽頂上 自後累朝皇帝相承寶重 凡正旦及天壽節大朝賀時則服用之(大德 연간에 本土의 어떤 거상이 한 관리에게 紅剌 한 덩어리를 팔았는데, 무게가 한 냥 세 돈쭝이며 가격은 中統鈔 십사만정초이다. 모자 꼭대기에 상감하는 데 썼는데 이후에 역대 왕조의 황제들이 계승하여 귀중히 여겼다. 무릇 元旦이나 天壽節에 朝賀할 때 갖추어 쓴다.)"의 기록과 약 300여년의 간극을 두고 있지만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을 띠고 있다. 특히 『南村輟耕錄』의 "紅剌 한 덩어리를 팔았는데, 무게가 한 냥 세 돈쭝이며 가격은 中統鈔 십사만정초이다"라는 내용과 『博物要覽』 "한 덩이에 무게가 한 냥쭝이고 값은 십만 정초이다"라는 내용은 '1냥 3돈쭝 : 14만정초 ≒ 1냥=10만 정초'의 대비를 보이고 있어서 이 두 기록이 비슷한 시기의 '紅剌'의 가격을 전제로 한 기록임을 말해 준다.

25) '紫寶石 名披耶西'의 '披耶西'가 예문(9)의 '撇阿劑'와 같이 아라비아어 'bijādi'의 음차어이다. 여기서의 '紫寶石'은 바로 '紫鴉琥'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 비록 후대의 예이긴 하나 이와 관련한 음차어를 다음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 『漢淸文鑑』(1779) 권10: "碧琶石ㅅ 비야시 寶石之醬色者 "
나. 檀萃, 『滇海虞衡志』(1799): "碧霞璽 一曰碧霞玭 一曰碧洗 皆寶石之類 出猛密土司中 五色俱有 以深紅透水為最 紫黃綠間白色次子 白墨兩色最下." // 『滇海虞衡志』記載 : "碧霞璽一曰碧霞玭, 一曰碧洗 ; 玉紀又做碧霞希。今世人但稱碧亞, 或作璧璽, 然已無問其名之所由來者, 惟為異域方言, 則無疑耳."
다. 『大淸會典圖』(1818)卷四十三: "妃嬪頂用碧琶玉."
라. 『玉紀』(1839): "碧霞希"

가)에서 알 수 있듯이 Sri Langca[錫蘭國] 産 '披耶西'나 Miyanma[猛密土司] 産 '碧琶石ㅅ'는 모두 다 '紫寶石'을 가리키는 말이다.('碧琶石ㅅ'의 만주어 대응어는 'langca'인 것은 이 보석의 이 보석의 원산지인 'Sri Langca'에서 온 말로 추정된다.) 이러한 종류의 보석이 『南村輟耕錄』의 「回回石頭」 항목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이것이 중국에 유입된 시기가 원나라가 아닌 명나라 말기부터였기 때문일 수 있다.

달리 『博物要覽』에서는 '照殿紅'과 '深紅'이 다 같은 종류 '紅寶石'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白水가 없는 '剌'과 白水가 있는 '鴉忽'이 혼동되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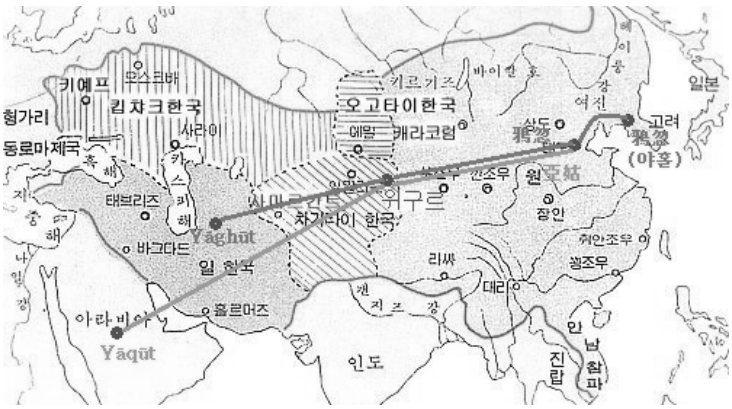
(9), (10)의 논의에 따르면, (6)의 '紫鴉忽→ᄌᆞ타날'에서 보이는 밑줄 친 '鴉忽'과 '날'의 대역상의 혼동이 단순한 오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정한 시기 이후 이 두 단어가 지속적으로 혼동되어 왔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혼동상에 더하여, (5)의 '鴉鶻'과 그 하위 항목 '紅亞姑, 青亞姑, 黃亞姑' 등의 관계처럼 다음의 다양한 이표기 예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1) 가. 明 永樂 寧波貢市 『暹羅國貢品表』[26] : "小沒紅比者達石……小洗納泥石……小沒青鴉呼石……撒不剌者石……白押忽石……孔穆喇石"

다. 『瀛涯勝覽・錫蘭』: "王居之側 有一大山……此山出紅雅姑 青雅姑……昔剌泥……窟沒藍 等一切寶石皆有。"(국왕이 거주하는 곳의 옆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 紅雅姑 青雅姑……昔剌泥……窟沒藍 등 보석이 있다.)

(11 가, 나)의 '鴉呼, 押忽, 雅姑' 등은 모두 (5)의 '亞姑', (9)의 '鴉琥'와 마찬가지로 (번역) 『박통사』의 '鴉忽'의 이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들의 마지막 음절 '姑, 鶻, 忽, 琥, 呼'에는 聲母상의 차이가 있다. '姑'는 群母이고 '鶻, 忽, 琥, 呼'는 匣母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聲母상의 차이는 아마도 이 단어가 유입된 서역 어휘의 영향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宋峴(1998: 60)에서 "'亞姑'는 아라비아어(Yāqūt)의 음역어이고 '鴉鶻'은 페르시아어(Yāghūt)에 대한 음역어"임이 지적된 바 있다. 이와 같이 (9~11)의 명대 문헌들에 따르면 아라비아, 페르시아 등 서남아시아에서 유입된 '야홀'류 보석에 대한 음역어가 중국에서는 아라비아어 계열의 음차어 '亞姑[〈Yāqūt]'와 페르시아어 계열의 음차어 '鴉鶻[〈Yāghūt]'로 모두 존재



〈그림 2〉 '야홀'류 이표기의 전파 경로

26) '暹羅國'은 오늘날의 태국이다.

했으나 한반도에서는 페르시아어 계열의 '鴉忽[〈Yāghūt]'만 차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주 21)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세진의 『老朴集覽』에서 나온 '瓊'에 대한 해석이 陳元龍(1652~1736)의 『格致鏡原』 卷三十三 「珍寶類」에 재인용된 『波斯志』의 '蠟子' 항목에 대한 언급과 일치한다는 점에서도 페르시아어 계열의 '鴉忽'이 원대 중국을 거쳐 당시 고려 시대 『박통사』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야홀(yahol)' 계열 어휘의 전파 과정을 그림으로 보이면 〈그림 2〉와 같다.

Ⅲ. '마니주(馬泥珠)'의 전파

중세 한국어에 한자어를 통해 들어온 단어들 가운데에는 멀리 인도에 뿌리를 두고 들어온 단어들도 많다. 대개는 불교계 단어들인 이 단어들이 한국어에 어느 시점에 유입되었는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들 단어들이 한국어 문헌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 과정과 중국어에서 이 단어들이 유입되어 온 과정을 병렬적으로 배치해 볼 때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될지 모른다.

중세 한국어에 들어와 있는 불교계 단어의 시원은 물론 한민족에 불교가 처음 전파되기 시작한 삼국시대부터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불교 용어들은 통일신라를 전후하여 혜초 등 수많은 승려들이 천축, 즉 서인도까지를 왕복하며 얻어온 지식 속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며 불교를 국기로 하여 팔만대장경을 제작한 고려 시대에 이미 이러한 단어들은 보편화되었을 것이나, 우리에게 중세 한국어의 문헌으로 남겨진 자료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인 15세기 중엽의 자료에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 단어로 '摩尼' 혹은 '摩尼珠, 摩尼寶'로 알려진 단어가 있다.

(12) 가. 布施ᄅᆞᆯ 호ᄃᆡ 金銀 珊瑚 眞珠 摩尼 硨磲 瑪瑙 金剛 여러 보ᄇᆡ와 奴婢와 「奴ᄂᆞᆫ 남진 죠이오 婢ᄂᆞᆫ 겨집 죠이라」 술위와 보ᄇᆡ로 ᄭᅮᆫ 덩과로 즐겨 布施ᄒᆞ야. 〈1447, 『석보상절』 13: 019b〉

나. 이런 蓮花ㅣ 八萬四千 니피오 ᄒᆞᆫ 닙 ᄉᆞ시마다 百億 摩尼珠로 ᄇᆞᅀᆞ와 ᄆᆡ의 ᄭᅮ미고 摩尼마다 ᄌᆞ믄 光明을 펴아 그 光明이 蓋 ᄀᆞᆮᄒᆞ야 七寶ㅣ 이러 싸 우희 차 두피고 釋迦毗楞伽寶로 臺ᄅᆞᆯ ᄆᆡᆼᄀᆞ니 이 蓮花臺예 八萬 金剛과 甄叔伽寶와 「甄叔迦ᄂᆞᆫ 블근 비치라 ᄒᆞᆫ 마리니 나못 일후미니 이 보ᄇᆡ 그 나못 곳빗ᄀᆞ티 블그니라 梵摩尼寶와 「梵은 조ᄒᆞᆯ씨니 摩尼珠ㅣ 조ᄒᆞᆯ 씨 梵摩尼寶ㅣ라 ᄒᆞ니라」 眞珠 그믈로 ᄭᅮ미고 臺 우희 네 긷 寶幢이 잇고 寶幢마다 百千萬億 須彌山 ᄀᆞᆮ고 幢 우ᄒᆡᆺ 寶幔이 夜摩天宮이 ᄀᆞᆮ고 ᄯᅩ 五百億 寶珠로 ᄇᆞᅀᆞ와 ᄆᆡ의 ᄭᅮ미니 寶珠마다 八萬四千 光이오 光마다 八萬四千 가짓 金色이오 金色마다 寶土애 차 펴디여 寶土ᄂᆞᆫ 보ᄇᆡ 싸히라. 〈1459, 『월인석보』 08: 018b-019b〉

(12)에 나오는 '摩尼' 혹은 '摩尼珠, 摩尼寶'는 중국 문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중국의 문헌에서는 이

단어가 좀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티벳 지역에 전승되던 귀신 이야기가 12세기 몽골의 확산과 함께 몽골과 중국으로 전달된 과정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 『尸語故事』[27]를 들 수 있다. 청대 만주어로 작성된 이 자료는 원-명-청대를 거치면서 중국에 다양한 모습으로 수용되었는데, 이 책에는 'cindamani(친다마니)'와 같은 범어계 외래어가 만주어의 외래어로 포함되어 있다. '친다마니'의 '마니(mani)'는 범어, 즉 산스크리트어로 '여의주'를 가리키던 말이다.

(13) 가. cintā-maṇi (그 소유자 모두의 원을 성취하게 하는) 如意寶珠, 공상적인 보석 如意, 如意珠, 如意寶, 如意寶珠. [음사] 如意摩尼.[28]
나. maṇi 구슬; 주옥, 보석, 寶珠, 如意寶珠, 明珠. [음사] 摩尼, 摩尼珠.[29]

(13 가)의 'cintā-maṇi'의 'cintā'는 산스크리트어(즉 범어)로 '생각, 念'의 의미를 지니는 말이고 'maṇi'는 산스크리트어(즉 범어)로 '구슬(특히 진주)'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cintā-maṇi'는 "사람의 생각한 바를 이루어주는 보석"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주로 '(진주와 같이) 흰색의 밝은 구슬'을 나타내던 것이다. 그런데 산스크리트어에서는 'mani'와 관련되는 단어로 다음과 같은 예들을 더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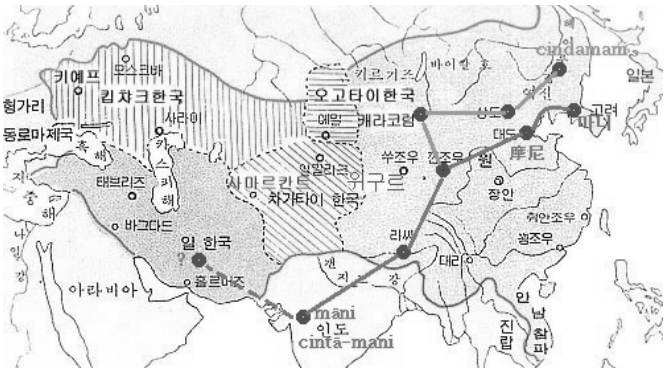
(14)[30] 가. māṇikya 루비(紅玉)
나. māṇi-bhadra 寶賢, 寶玉, [음사] 摩尼跋陀

'māṇi'를 어근으로 하는 (14 가, 나)의 단어들은 앞의 'maṇi'와 마찬가지로 '摩尼'로 음차되는데 그 색깔이 붉은색을 띠는 루비(즉 紅玉)에 대응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런 이유이기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摩尼'는 본래 '흰색의 보석류'를 가리키는 원뜻으로 사용되면서도 중국으로 유입된 이후에는 '붉은 색의 보주'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마니주로 만들어진 염주(念珠)는 본래 보리수 열매[흰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점차 무환자 열매[붉은색]으로 만들게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고에서는 'maṇi'나 'māṇi' 들도 '보석의 이름'으로서 그 연원을 좀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도에 앞서 아라비아 혹은 페르시아 등에 그 기원이 닿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아직 충분히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마니주(馬泥珠)'에 대한 전파 과정은 〈그림 3〉과 같이 그려 볼 수 있다.[31]

---

27) 『尸語故事』는 인도 카슈미르 지역에서 창작되어 티벳, 몽골을 거쳐 중국의 일부 소수민족과 만주족에게 전해지고 일부 이야기는 한국과 일본까지 전해진 동북아시아 전역에 걸쳐 전파되어 있는 전형적인 인터내셔널리즘 성격의 屍鬼系 故事이다. 이 책은 최동권 · 김양진 외(2011)에 의해서 『언두리가 들려주는 끝없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된 바 있다.
28) 전수태(번역), 『(한역대조)범한대사전』, 대한교육문화신문출판부, 2007, 544쪽.
29) 전수태, 앞의 책, 2007, 1138쪽.
30) 전수태, 앞의 책, 2007, 1186쪽.
31) 익명의 심사자는 'mani'류 단어들의 기원을 인도라고 할 때, 본고의 제목이 '서남아시아로부터의 동북아시아로의 어휘 전파'인 것과 맞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인도를 전통적으로 서역의 범위로 보는 논의에 따라 인도로부터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유입된 단어들도 서남아시아로부터의 동북아시아로의 어휘 전파의 예에 포함된다고 본다. 더욱이 아직 충분



〈그림 3〉 ‘마니주’의 전파 경로

Ⅳ. 맺음말

이상에서 1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동서양의 교류가 활성화된 시기의 어휘 중 『박통사』에 등장하는 ‘날’과 ‘鴉忽’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단어들이 어떠한 경로와 관계 속에서 서아시아의 먼곳으로부터 한민족어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날’은 이미 14세기 이전에 ‘la'l[아라비아 〉 위구르] 〉 nal[몽골] 〉 剌[중국] 〉 날(고려/조선)’의 전파 과정을 거쳐 한국어에 정착하였다가 점차 소멸하였지만 현대 국어의 ‘반지알’, ‘반지가 알이 굵다’, ‘반지에 알을 끼우다’ 등에 사용되는 ‘알’이 실제의 ‘알’이라기보다는 ‘날’에 가까운 용법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래 ‘鴉忽’은 ‘날’과는 다른 단어였는데, 적어도 15세기 한국어에서는 이 두 단어가 실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혼동의 단계를 거쳤다. 아라비아어 ‘Yāqūt’의 음역어 ‘亞姑’와 페르시아어 ‘Yāghūt’에 대한 음역어 ‘鴉鶻’은 각각 위구르와 몽골을 거쳐 중국에 정착하였는데 그 중 페르시아어계 어휘인 ‘鴉鶻’만이 한반도에 전해지고 아라비아어계의 ‘亞姑’류는 한반도에까지 전파되지 못하였다. 한편 ‘mani〉摩尼’처럼 서인도로부터 티벳,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전해진 단어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동 경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본고의 논의가 아직 거칠고 투박한 논의이기는 하나 이 방면 어휘 연구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고의 연구 과정에서 동서양 어휘 교류의 정밀한 연구를 위해서는 이슬람 계통의 문헌이나 중세 이전 서인도의 여러 문헌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본고의 필자들은 이러한 문헌들을 직접 살펴보지 못하였다. 본고에서 누적된 여러 곳에서의 논리적 빈칸들은 바

히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본고의 필자들은 ‘maṇi’나 ‘māṇi’가 인도에 앞서 아라비아나 페르시아에 그 연원을 두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로 이러한 문헌적 단절에 기인한 바도 크다. 향후 이 방면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이슬람권 및 서인도권의 문헌에 대한 체계적 접근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논저류

김양진, 「(번역) 『박통사』(上)의 명사류 난해어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13, 국어사학회, 2011.

김양진 · 김수경, 「만문본 『언두리[神]가 들려주는 끝나지 않는 이야기』의 문화사적 의의」, 『동아시아고대학』 32, 동아시아고대학회, 2013.

김양진 · 장향실, 「(번역) 『박통사』(상)의 난해어－용언류 유일 예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66, 국어국문학회, 2014.

박성훈, 『飜譯朴通事辭典』, 태학사, 2010.

정수일, 『문명교류사 연구』, 사계절, 2002.

정수일, 『문명담론과 문명교류』, 살림, 2009.

장숙영, 『번역박통사: 상, 주석』, 한국문화사, 2008.

최동권 · 김양진 · 신상현 · 김선민 · 이효윤 · 김수경 · 김경나 · 문현수 · 김미미 · 오민석, 『언두리[神]가 들려주는 끝나지 않는 이야기』, 박문사, 2011.

최재영 · 정윤철, 「『朴通事諺解』 譯註(2)」, 『중국어문논역총간』 18, 중국어문논역학회, 2006.

柳昭民, 「元明清西部少數民族對寶石和玉之開采及認識」, 『中華科技史學會會刊』 10, 2006.

馬天博, 「元代回回人漢化新論」, 『黑龍江史志』 17, 2009.

宋 峴, 「'回回石頭'與阿拉伯寶石學的東傳」, 『回族研究』 3, 1998.

楊志玖, 「回回人的東來和分佈」, 『回族研究』 1, 1993.

楊志玖, 『元代回族史稿』, 天津: 南開大學출판사, 2003.

林梅村, 「珠寶藝術與中外文化交流」, 『考古與文物』, 2014.

王 頲, 「以獅子爲"貢獻"之中、西亞與明的交往」, 『西北民族研究』, 2004.

2. 문헌 자료류

(元)陶宗儀, 『南村輟耕錄』, 1344.

(淸) 『四庫全書』, 1782.

『漢淸文鑑』, 1779.

『釋譜詳節』, 1447.

『한어대사전』, 한어대사전 출판사, 1994/2001.

김창조, 『朴通事新釋』, 1765.
김창조, 『朴通事新釋諺解』, 1765.
세조, 『月印釋譜』, 1459.
여병무 외 편, 『한몽 · 몽한사전』, 몽골 울란바타르 대학교 출판부, 2007.
전수태(번역), 『(한역대조)범한대사전』, 대한교육문화신문출판부, 2007.
정수일 편, 『실크로드 사전』, 창비, 2013.
최세진, (번역) 『朴通事』(上), 1516.
최세진, 『老朴集覽』, 1517.
H.Luvsanbaldan, *ngol helnii tovch tailbar toli,* 몽골: 울란바타르, 1966.

3. 인터넷 자료

각종 보석과 관련된 사이트 : 〈http://www.360doc.com/content/15/0501/13/94306_467244383.shtml〉
'披耶西'와 관련된 사이트 : 〈http://www.baike.com/wiki/碧璽〉
*Azhār al-Afkār fī Jawāhir al-Ahjār*과 관련된 사이트들 :
〈http://www.wdl.org/zh/item/4256/,
http://www.worldcat.org/title/kitab-azhar-al-afkar-fi-jawahir-ahjar/oclc/21638433&referer=brief_results〉

* 이 논문은 2015년 8월 28일에 투고되어,
2015년 9월 1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5년 9월 2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5년 10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Study on the Lexicon from Southwest Asia Spread to Northeast Asia

Yu, Caili · Kim, Ryangjin*

This paper examined what is the spread process of 'yahol', 'nal' that written in the Chinese books such as *PAKTONGSA*, 'maniju' that appeared the Buddhist scriptures. And the paper also examined in process of spreading what vestige left in these words in any other time of language.

The result of the discussion is that the lexicons of Southwest Asia which took Arabia and the west of India as the starting point, arrived at North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Central Asia and Mongolia. By observing this spread process, we can find the cross section in the passage of cultural exchanges between Southwest Asia and Northeast Asia.

By looking for this passage, the times of invigorating cultural exchanges and the appearance will be observed, though the discussion for the process of exchanged lexicons should be referred to two sides.

[Key Words] yahol, nal, maniju, *Paktongsa,* lexicon spread process

* Yu, Caili, PhD Student, Dep.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yung Hee University.
Kim, Ryangjin, Associate Professor, Dep.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yung Hee University.